

## 2025년 3월 4주차 각 지역 소식



- 🌐태국
  - ✔태국 대표단,中강제 송환 위구르족 방문...안전 확인해 안심
  - ✔타이 미디어펀드,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과 협업 한국 전문가들 초청
  - ✔태국,특산품'코끼리바지'입기 캠페인...패션 소프트파워
  - ✔태국 경찰청 가짜 두리안 온라인 판매 페이지 주의하라 경고
  - ✔태국,방콕 도심서 F1 대회개최추진...28년 유치 목표
  - ✔열지수(heat index)이미 '위험'수준 직사 광선 피할 것 권고
  - ✔4월송크란 앞두고 워터 페스티벌 준비
  - ✔태국,전기차 생산 허브로 부상...중국기업 투자 확대
  - ✔메타버스 기반 에듀테크 플랫폼 줍(ZEP) 태국 시장에서 정식 서비스 시작
  - ✔4월 태국발 부산/인천착 운임 인상,기항지 체선으로 스케줄 딜레이 심화,스페이스 부족 롤-오버 발생,인천항 선복감소로 스케줄 조정 지속

- 🌐동경
  - ✔2월 소비자 물가 3%상승 3개월째 3%대 기록
  - ✔일본 은행 향후 금리 인상 시사,추가 금리 인상 시기 6월이나 7월로

## 🌐하노이

- ✔하노이발 인천착 항공 스페이스 원활
- ✔인천항~베트남 컨테이너 항로 추가 개설...총 26 개(인천-청도-하이퐁)
- ✔효성,베트남에 15 억달러 추가 투자 결정
- ✔GS25,베트남 하노이에 첫 6 개매장 동시 오픈
- ✔성주 참외 베트남 첫 수출 성공

## 🌐호치민

- ✔아프리카궤 '코코아'수급불안,베트남 산지가 2 배 '경충'...kg 당 26 만동(10.2 달러)
- ✔베트남,'전략적기술'이전 FDI 세제혜택 추진...10 년간 법인세 감면
- ✔롯데글로벌로지스,동나이성 콜드체인 물류센터 착공...내년 반기 가동
- ✔다낭 공항 '체크인부터 출입국 심사까지' 100%자동화...베트남 최초

## 🌐대만

- ✔3/16 KANWAY GLOBAL 기륭항에서 급유시 기름유출 사고,일부선박 오염 & 입출항지연,현재 입출항정상
- ✔대만,한중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 반덤핑관세 5 년 연장

## 🌐홍콩

- ✔홍콩익스프레스(UO),6 월부터 청주,대구 직항편 운항.홍콩에서 서울,부산,제주,청주,대구 5 개 주요 목적지 직항 운영 유일 항공사
- ✔홍콩발 항공운임지수 전주 대비 2.5%상승.미국 관세폭탄 대비 사전 수출 물동량 증가로 수요 상승
- ✔홍콩 올해,작년보다 더워,6 월부터 5-8 차례 태풍 가능

## 🌐자카르타

- ✔인니 세계 최대 무슬림인구 국가 1 위 회복,2 위 파키스탄/인도/방글라데시 순
- ✔인니 2 월수출액증가,수입액 소폭 증가,지속적 무역흑자 기조 유지(제조업,농산물 부문 큰폭 증가)
- ✔자카르타 위성지역 동부지역 지속적 침수상황 산발적 폭우,르바란이후 방조제건설 개시키로
- ✔3 월 17 일 인니증시 블랙화요일-증시폭락,금융시장요동.환율급등으로 정부개입,현정부 무상 급식, 경제장관과 불화설 등 경제 불안요소 표출

## 🌐싱가포르

- ✔동남아최대물류 전시회'트랜스포트 로지스틱'개최,10 월 29 일-31 일
- 참가신청 <https://transportlogisticsea.com/>
- ✔2 월 싱가포르 창이공 항실적 항공기운항 2 만 9 천편,여객 544 만명,화물 14 만 3 천톤,전월 대비 10% 하락

## 🌐말레이시아

- ✔정부 25년 GDP 5% 성장발표, 견고한 노동시장,첨단 제조업 고부가 가치산업 투자 확대,지속적 재정 정책 지원
- ✔에어아시아 노선 확대.6월 27일부로 쿠알라룸푸르-다윈 직항 노선 주 4회신규운항,지역 물류 항공 연결성 강화 조치

## 🌐마닐라

- ✔4월 항공 FSC 요율 인하 예정

## 🌐심천

- ✔비야디 시총,7년만 닝더스다이 추월
- ✔해상-국적선사 심천발 한국착 FCL 운임 3월하반기 인하,장비공급 정상,UPS 항공사 ULD 작업화물 오프로드 빈번,ZH 항공편 오프로드 발생,미주/유럽향 전자상거래 화물로 운임 인상,스페이스 부족

## 🌐충칭

- ✔中 3대 항공사,항공권 '상호판매'

## 🌐샤먼

- ✔중국정부,소비진작위해 "불법연장 근로시간 금지"
- ✔3월중순까지 한국향 해상운임 유지,미주/유럽 인하

## 🌐불산

- ✔역전의 글로벌 증시,중국판 'M7'의 미국 추월

## 🌐청도

- ✔청도항 채소종자 수입증가(매년 2월하순-5월까지 종자수입 성수기 시금치,고수,대파,양파,당근,브로콜리 등 서민 종자 위주)

## 🌐상해

- ✔中,육아보조금 포함 출산 장려책 적극 추진
- ✔中,AI 생성 콘텐츠 식별 의무화
- ✔미국 월마트등 대형 바이어,중국 공급업체에게 관세인상 압력전가 움직임
- ✔MAERSK,4월 FAK 요율운임 인상안 발표...성공여부 불확실
- ✔5분 충전 400KM 주행? BYD, 차세대충전 기술 공개

## ▶주간 시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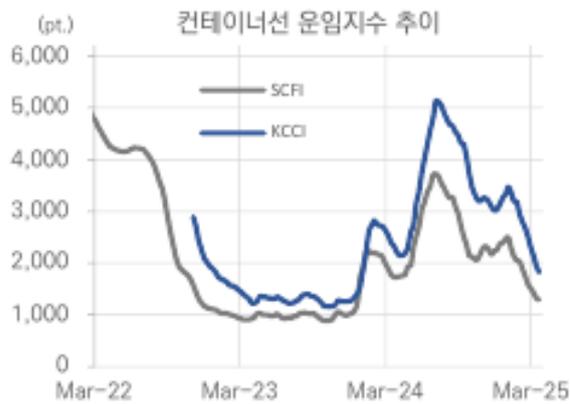
**Container** 시장 반등을 견인할 요소 부재, 낙폭은 완화

**Bulker** 중·소형선 강세, 대형선 약세로 약보합세

## ▶Container

	'25.3.21.	'25.3.14.	증감
SCFI	<b>1,292.75</b>	1,319.34	▼ 27
美서안	<b>1,872</b>	1,965	▼ 93
美동안	<b>2,866</b>	2,977	▼ 111
유럽	<b>1,306</b>	1,342	▼ 36
지중해	<b>2,195</b>	2,295	▼ 100
동남아	<b>446</b>	446	-
중동	<b>1059</b>	976	▲ 83
호주	<b>755</b>	735	▲ 20
남미	<b>1,680</b>	1,945	▼ 265
日서안	<b>304</b>	304	-
日동안	<b>310</b>	308	▲ 2
한국	<b>137</b>	137	-
동서Africa	<b>3,634</b>	3,651	▼ 17
남Africa	<b>2,123</b>	2,207	▼ 84

\* 美서안, 美동안: \$/FEU, 그 외: \$/TEU 사용



## 종합 SCFI 10 주 연속 하락, 낙폭 축소, 시장 반등을 견인할 요소 부재

1.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도 미국의 후티반군 공습이 계속되며 긴장 국면 지속. 유럽항로의 수에즈 운하 이용 재개 시점은 예측 불가하며 이는 최근 위축되는 시장 상황에서 과잉 공급을 다소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2. 컨선 인도량은 2 월까지 48 척 40 만 TEU, 3 월 포함 시 50 만 TEU 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3. 향후 연말까지 매 분기 50 만 TEU 의 신조가 인도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폐선은 현재까지 2 척 1,100TEU 에 불과, 시장 공급 압박은 계속

## 미주항로 **美 양안 10주 연속 하락, 연초 대비 서안 62.5%, 동안은 55.3% 하락**

1. 3월 주간공급량은 56.7만 TEU로 전년대비 +8.4%, 전월대비 -0.4%를 기록. 수요 강세로 공급이 극대화 된 10월(58.6만 TEU)대비 3.3% 축소됐으나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크게 상회
2. 2월 LA/LB 항 컨처리량은 각각 80.1만 TEU, 76.5만 TEU로 전년대비 +2.5%, +11.8%를 기록. 하지만 춘절 및 연초 수요 위축이 반영되며 1월 대비로는 각각 -8.7%, -5.6% 감소
3. 고려해운, 장금상선 포함 아시아 7개사는 2,800TEU급 1척 씩 투입하여 4/30부터 상해-
4. 멕시코 서비스를 개시. 고려해운은 '85년 이후 약 40여년 만에 북미대륙 서비스를 재개

## 유럽항로 **3주 연속 하락, 항만 혼잡 지속 중에 수급 불균형으로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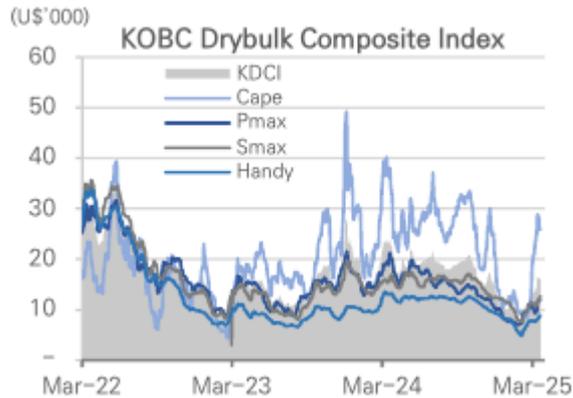
1. 선사들의 운임 방어 노력에도 3월 하순 운임은 월초 대비 하락. 4월 임시결항 계획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4월 GRI 또한 선사 별로 다소 상이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중
2. 3월 주간공급량은 48.8만 TEU로 전년대비 1.8% 감소, 전월대비 0.5% 증가. 최근 공급 축소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요 부진 및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른 조정 영향으로 약세 계속
3. 로테르담, 앤트워프 등지에서 파업, 악천후 그리고 얼라이언스 선박 재배치 등의 이슈로 혼잡 지속. 항만/야적장/내륙 운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혼잡 심화는 또다른 변수로 작용

## 연근해/기타 **보합세, 원양항로 부진 속에 상대적 선전**

- UNCTAD는 '24년 4분기 선진국 무역량이 -2% 역성장한 반면 동남아를 비롯한 신흥국은 2% 성장했다고 발표. '25년에도 동남아/인도 등이 세계교역량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 Bulker

		3/21	3/14	증감
KDCI		15,976	16,410	▼ 434
Cape	평균	25,909	28,851	▼ 2,942
	F/H	42,625	40,813	▲ 1,812
	T/A	19,263	18,575	▲ 688
	Pac RV	22,950	30,413	▼ 7,463
P'max	평균	11,836	11,693	▲ 143
	F/H	16,049	15,813	▲ 236
	T/A	9,380	9,250	▲ 130
	Pac RV	11,688	11,395	▲ 293
S'max	평균	12,563	11,420	▲ 1,143
	F/H	15,792	14,625	▲ 1,167
	T/A	13,807	13,567	▲ 240
	Pac RV	12,805	11,264	▲ 1,541



## Cape 경기부양책에도 부동산 경기는 위축

- 부정적인 부동산 경기 지표로 인한 철광석 수요 위축과 가용선박 증가로 하락세
- 최근 발표된 중국의 부동산 지표는 여전히 건설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여 철광석 수요가 위축된 데다 선박은 충분한 상황이어서 운임 감소
-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월 신규 주택 가격은 1월에 비해 0.14% 하락, 같은 기간 재판매 주택 가격은 0.34% 하락, 신규 착공(연면적 기준)은 '24년 말 대비 29.6% 하락
- 20일 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LPR 금리를 5개월 연속 동결. 시중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우려로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또한 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여 정부가 5,000억위안(약 100조 8,800억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여 자본 보완 예정
- EU는 4월부터 유럽 내 철강 수입 할당량(세이프가드)을 15% 축소하기로 결정. 이는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해 제 3국의 철강 제품들이 유럽 시장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막아 유럽 철강 회사를 보호하려는 조치
- 중국의 봄철 건설활동 회복이 더뎠다. 철광석 수요 위축에 따른 운임 하락이 지속될 전망이다

## **Panamax** 브라질 대두 수출 확대

1. USG 곡물 수출 부진과 아시아 석탄 물동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곡물 수출 호조와 선박 공급 감소로 보합세
2. 美 농무부(USDA) 자료에 의하면, 3/13 일로 끝나는 한 주 동안 옥수수 수출은 전주 대비 10%, 대두는 31%, 소맥은 41% 감소하는 등 수출량 급감
3. 미국 대평원 지역과 중서부 지역의 강한 돌풍으로 미국 최대 소맥 재배지역인 캔사스주의 소맥 작황이 전주 대비 악화
4. 브라질은 3월 일평균 대두 수출량이 855,078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7% 증가하여 수출 호조세. 브라질 곡물수출협회(Anece)에서 전망한 3월 대두 수출량 또한 1,590 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 또한 컨설팅업체인 Agrural 발표에 따르면 이번 시즌 브라질 대두 수확이 70% 완료되어 전년 동기 기간의 63%보다 상회하는 등 수확 속도 또한 호조세
5. 3/17 멕시코는 자국 내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재배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정.
6. 이는 과거 멕시코의 GMO 옥수수 수입 제한 노력과 함께 이번 GMO 옥수수 재배 금지로 미국 수출업체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
7. 중국의 자국 생산량 증가로 인한 수입수요 둔화가 지속되며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

## **Supramax** 인니산 석탄 규제 완화로 수요 증가

1. 호주 및 NOPAC 수입수요 증가와 선박 공급 부족 지속으로 상승폭 확대
2. 대서양은 USG 곡물 물동량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선박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상승세 유지
3. 태평양은 호주 및 남아공 석탄 가격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입수요가 증가하여 상승세
4. 남아공 국영 물류기업인 트랜스넛의 파업 가능성 대두로 인해 가격 하락과 수요 약세를 겪고 있는 남아공 석탄이 항구의 혼잡과 지연까지 겹쳐 수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有

상기 작성된 자료의 중 일부는 해양진흥공사의 공식 패널로 참여 된 기업으로써 해당 부서의 승인 후 배포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원 상무 / Kai Kim / Managing Director



07642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95 (내발산동, 맥익스프레스 빌딩)

Tel : +82-2-2661-3401(ext.704)

Fax : +82-2-2661-3403

Mobile : +82-10-5139-9985

E-mail : [kai@imcexpress.co.kr](mailto:kai@imcexpress.co.kr)

URL : [www.mcexpress.co.kr](http://www.mcexpress.co.kr)